

## Thematic Radar

## Ep. 21 CATL 상장: 여전히 매력적인 중국 테크

- CATL의 홍콩 상장은 성공적. 21일 MSCI 지수로의 편입도 발표된 만큼 향후 자금 유입도 기대
- 중국 기업들의 전반적인 기술력 향상이 관심을 유도. 샤오미는 자체 설계 AP칩을 공개하고 반도체 투자 본격화
- 중국 정부의 민영경제촉진법 시행 등 친기업 정책도 지속. 항셍테크 지수 중심의 접근 여전히 유효

지난 20일 CATL이 홍콩 거래소에 상장했다. 당일 약 16%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IPO를 통해 CATL은 예상보다 높은 46억 달러를 조달했다. 이는 2025년 글로벌 IPO 중 최대 규모다. CATL은 조달한 자금의 대부분을 헝가리 공장 등 생산 거점 확보에 사용해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1위 지위를 사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CATL의 상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홍콩 IPO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21일에는 CATL H주의 MSCI 지수 특별 편입도 발표되었다. 지수 반영일은 6월 2일이다. 이 외에도 여러 글로벌 지수로 추가 편입될 가능성도 높아 중국으로의 패시브 자금 유입도 기대된다.

CATL과 같은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배경에는 중국 테크 기업들의 전반적인 기술력 향상이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으로 샤오미는 22일 '쉬안제(Xingjie) O1'이라는 자체 설계 AP칩을 공식 발표했고, 향후 10년간 반도체 설계 및 시스템 개발에 500억 위안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스마트폰 제조사였던 샤오미가 본격적으로 반도체 내재화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실제로 샤오미의 R&D 지출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했고, 25, 26년에도 각각 308억 위안, 369억 위안으로 높은 지출이 예상돼 샤오미의 기술 수준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조도 유지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빅테크 대표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존의 규제 강화 기조에서 규제 완화 기조로의 변화를 시사했다. 지난 4월 30일 전인대에서 민영경제촉진법이 통과돼 5월 20일부터 정식 발효됐다. 민영경제촉진법은 중국 역사상 민간경제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기본법이다. 공정경쟁, 평등보호 등 민간기업의 신뢰 회복과 성장을 장려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중국 테크는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 테크 기업 30개에 집중 투자하는 Global X Hang Seng TECH ETF(2837 HK)로의 접근이 유리하다. CATL도 시가총액(상위 24위 이내)과 R&D 비용 기준(5% 이상) 등 항셍테크 지수 편입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8월 중순에 예정된 차기 리밸런싱을 기점으로 항셍 테크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 2025년 글로벌 주요 IPO 자금 조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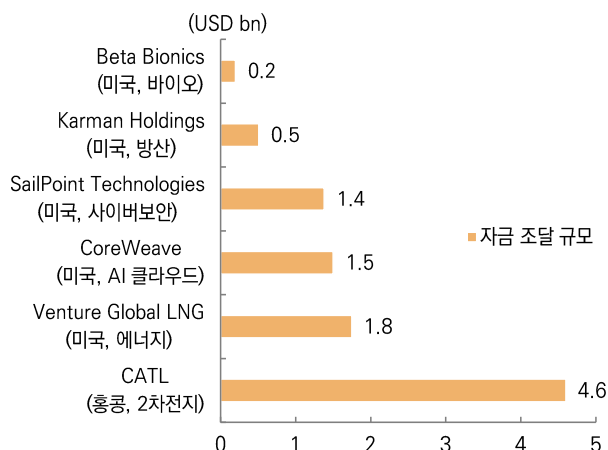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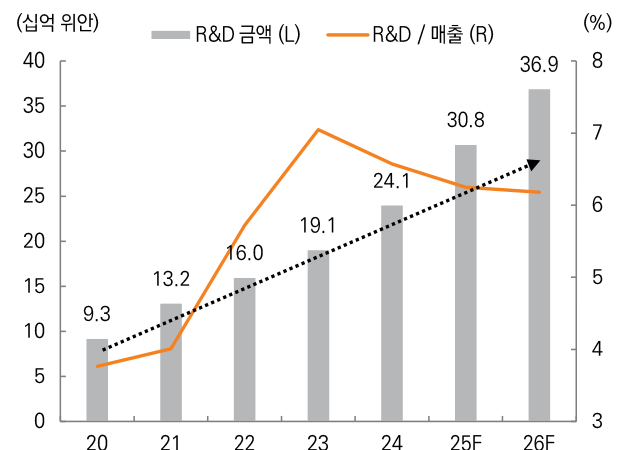


그림 2. 샤오미 R&amp;D 추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